

녹차수도 보성, 울포해수욕장 반려해변으로 가꾼다

보성군·사)연안환경보전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해양환경 중요성 알리는 '반려해변&해양환경교육'

보성군은 지난 29일 사)연안환경보전연합회(이사장 임영태)와 반려해변&해양환경교육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연안환경보전연합회는 '반려해변&해양환경교육'을 통해 해변과 연안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과 더불어 회천면 행정복지센터와 울포솔밭해수욕장 일대에서 '반려해변&해양환경교육'도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사)연안환경보전연합회(이하 연안환경), 보성군, 보성차생산자조합, 고흥군

수협 회천지점, (주)모아레저산업, (유)삼송이엔시, 울포·동울 어촌계, 회천초등학교 등 보성지역의 다양한 기관·단체가 동참했다.

"내가 사랑한 울포솔밭해수욕장!!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자"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연안환경연합회에서 '해양생태계와 환경보전'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특강, 울포솔밭해수욕장 정화 활동, 보성군 민간인명구조대의 안전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환경교육을 통해 회천초등학교와 어촌계 주민들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게기가 됐다는 평이다.

현장에서도 울포 솔밭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해 지속적인 관리 및 정화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MOU가 체결됐다. 고흥군수협 회천지점(지점장 이화현), 보성차생산자조합(조합장 서상균), (주)모아레저산업(대표 유형은), (유)삼송이엔시(대표 임배석), 울포·동울 어촌계(이경자 울포어촌계장, 김영민 동울어촌계장)가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은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보성별고갯벌이 있는 만큼 일찍이 연안과 해변의 중요성을 알고, 쓰레기정화활동에 힘써왔다."면서 "반려해변이라는 개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양 생태계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실천적 움직임이 활성화



되길 바라고 보성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백운산능이버섯협회, 서울대 남부학술림과 능이버섯 채취 계약 체결

지역민과 상생·협력을 통한 소득 증대 기대

광양시는 지난 25일, 서울대 남부학술림 광양사무소에서 남부학술림과 광양백운산능이버섯협회(회장 김태환) 간 '능이버섯 채취 계약'을 체결했다.

광양백운산능이버섯협회는 지난해 9월 남부학술림과 체결한 국유림 보호협약(MOU)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산물 예방 활동

등 지속해서 산림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내 산림부산물의 양여에 대한 채취 계약관리를 획득한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남부학술림 관리 임야 내 능이버섯은 산림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협회원만 채취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채취로 줄어들고



있는 산림자원의 보호, 지역민과 국가 간 산림

광양=기동취재본부

공동이용에 대한 인식 확립, 광양시 산촌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낙성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장은 "백운산 능이버섯이 소득 증대사업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광양백운산능이버섯협회와 함께 노력하며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이번 채취 계약으로 백운산 능이버섯이 광양시의 대표 임산물로 자리 잡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광양시의 새로운 임산물 소득작목 개발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문체부 '관광교통 개선사업' 공모 최종 선정 총 사업비 3억 9천만 원 투입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2년 지역 관광교통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는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경기도 파주시와 전남 여수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총 사업비 3억 9천만 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시내버스 출발·도착 안내 영상, 음성방송 송출, 안내지도 등 여행자 친화적인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게 된다.

다국어 정보와 전자 관광교통 지도 제공, 주요 교통거점 스마트기기 충전대 설치 등도 계획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문체부와 관광교통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각종 교통편의 시스템을 구축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6월말까지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은 516만 여명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순천시, 2024년까지 공공와이파이 1000곳으로 확대

현재 600개에 이어 올해 말 700개·내년 900개까지 설치



순천시가 공원에 설치한 공공와이파이.

순천시는 2024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구역을 10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했다. 현재 시 전역에 걸쳐 공공와이파이는 600개소를 운영 중이다. 올해 말까지 700개, 2023년 900개에 이어 2024년까지 총 1000개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와이파이는 시내버스, 정류장, 공원, 관광지, 관공서 등 모든 공공장소에 추가 설치되며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시민들의 수요가 예상되는 장소도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방문객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교통시설과 관광편의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는 공공와이파이 접속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공공와이파이에 접속하려면 스마트폰의 Wi-Fi 기능을 켜고 주변 Wi-Fi 신호를 검색해 'Suncheon WiFi Free' 또는 'Public WiFi Free'를 선택한 후 연결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청년 창업기업인 육성 '역량강화 교육' 개강

청년셀러 육성 위한 SNS 통한 홍보 마케팅 전략 등 교육

고흥군은 비대면 시대 흐름에 발맞춰 예비창업자 및 지역 내 청년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 SNS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청년 셀러 육성 및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청년 셀러'는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모바일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하는 자로서 코로나19로 비대면 판촉이 늘어나면서 최신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군은 29일 고흥 어울림센터 회의실에서 「고흥 청년 셀러(Seller) 양성교육」 개강식을 시작으로 1개월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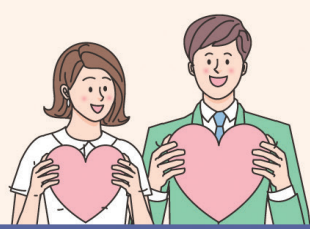
교육은 매주 월, 수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스피치커뮤니케이션즈 나선희 대표가 교육생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상

품의 홍보 판매마케팅 전략과 공동구매 라이브 방송 실연습 등을 교육한다.

개강식에 참석한 공영민 군수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창업 교육을 비롯해 우리 지역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남도 주관 '2022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고, 오는 11월까지 ▲치매예방&실버인공지능지도사 ▲공예교육 심리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해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삶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